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만든다

전주시, LG전자와 협력해 78곳에 주차구역 · 거치대 설치키로

최근 거리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전주시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는 ㈜LG전자와 협력해 이달부터 전주시내 78곳에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일종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주지역에서는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4개 업체의 339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불법주차·무단 방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카카오톡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왔으며, 추가로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사진=전주시청 제공〉

㈜LG전자에서 자체 개발한 무선 충전 공유 전동킥보드 거치대(이하 스마트 PM 스테이션)는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폭 3m 이상 보도 78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가 많은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 킥보드 이용자를 상가의 이용객으로 유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무단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가 줄어들어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정식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은 "이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이번 주차구역 설치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구청의 허가와는 별개로 실제 설치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서 전주 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여행박람회(NATAS Holidays 2023)'에 참가했다.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개최되는 '싱가포르 여행박람회(NATAS Holidays 2023)'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 기관, 여행사, 항공사 등 54개의 유관기관과 개별여행객 등 관람객 10만 명이 참가하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의 한국관광홍보관에서 한복·한지·한식 등 우수한 한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한국홍보관 내 체험 이벤트존과 관광거점도시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고, 태극선과 꽃신 거치대 등 전주를 기념할 수 있는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개별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홍보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상품 홍보·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시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국내외 참가업체와의 간담회에도 참가해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KTO(한국관광공사)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단체 관광뿐만 아니라 FIT(개별관광) 잠재 수요가 높은 시장"이라며 "현지 박람회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 및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팸투어 추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잠재 수요층이 실질적인 전주 관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중·일 3개국 청년 예술인 생각 공유

전주시, 17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년문화 포럼' 개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국가를 대표하는 현시대의 청년 예술인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일반 시민과 청년 예술인, 관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년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일 청년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챗GPT, AI아트 파헤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지현 예술응호론자 △안현준 사진전문 예술가 △천바오양(과학기술 예술창작 관련 예술가) △쿠시노 노부마사(아웃사이더 아트 전문가) 등 동아시아 3개국 4명의 청년 예술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시는 3개국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문화·예술 등 분야별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동아시아 청년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최근 점차 활발해지는 AI와 챗GPT를 이용한 예술 작품 활동에 대한 한·중·일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AI시대에 대비한 문화계의 대처방안과 미래 발전 방향에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행사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참여하는 연사들은 온라인 'Zoom'을 통해 참여하며, 직접 대면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현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 마련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방과 후 한자교사 연수 성료

전주시와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걸쳐 전주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한자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한 자 漢字(한자) 인문학' 연수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병기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문화영토를 넓혀야 할 때이다. △한시, 한문은 다 중국문화인가?'를 주제로 두 차례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창근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강사인 최상근 교수가 각각 '근접발달개념을 적용한 한자지도'와 '최상의 수업, 최악의 수업'을 주제로 한 강의도 이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방과 후 한자교사들은 또 교육현장에 적용할 교재 관련 토의를 통해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단계별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 △한자급수 위주로 할 것인가 주제별로 할 것인가 혼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초등학교 교과서 용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여부 △한자의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와 고전번역원은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방과후 한자교재를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방과 후 한자교사는 "앞으로도 방과후 한자교사를 위한 연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교육현장에 접목시켜 더 나은 교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세종시 청소년들, 전주시 야호학교 공간 탐방

세종시 청소년들이 전주지역 청소년들의 자치배움터이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야호학교의 공간혁신사례를 배웠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고운청소년센터와 새롬청소년센터, 조치원청소년센터 등 세종시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 30명과 시설 관계자 3명이 전주시 직영 청소년시설인 야호학교 공간 탐방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청소년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세종시 청소년과 시설 관계자들은 야호학교의 공간 콘셉트와 공간 구성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한 청소년시민자문단의 활약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 야호학교 각 층별 특성과 활동실의 특색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견학에 참여한 한 세종시 청소년은 "야호학교가 '청소년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과 진로를 설계해 보는 자치활동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치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을 만큼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 금암도서관 옥상서 펼쳐지는 야간 야외 공연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서관 옥상에서 야간 야외 공연인 '달빛 공연'을 선보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달빛 공연'은 전주 도심이 한 눈에 들어오는 금암도서관의 옥상 야경을 배경으로 지역 공연자들과 힘을 합쳐 선보이는 음악 공연이다. 이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에게 공연장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인근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5월에 시작돼 4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금암도서관은 8월에는 전북대학교 버스킹 동아리인 '길바닥'(18일)과 통기타 동호회인 '코드'(25일)의 2차례의 공연을 선보인다.

매회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찾고 공연 참여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순항하고 있는 달빛공연은 공연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지며, 야외 공연의 특성상 10월까지만 운영된다.

별도의 관람 신청 절차 및 관람료 없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향후 계획된 일정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